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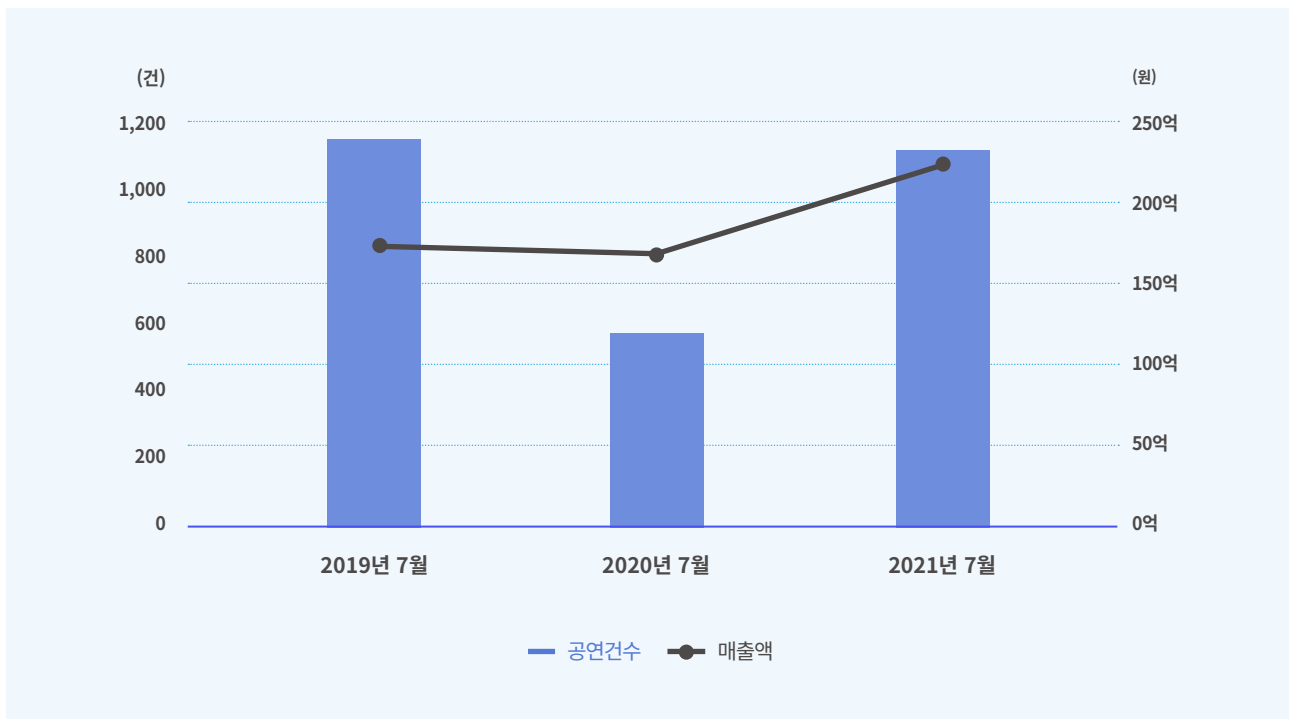
코로나를 뚫은 2/4분기 공연시장, 원동력은?

올해 2/4분기 상연한 대형 뮤지컬의 흥행 성적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 이전보다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¹⁾ 최근 대형 뮤지컬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공연 열풍 현상과, 거리두기 4단계의 여파에 대한 공연시장 변화를 인터파크 공연사업부의 백새미 부장과 함께 살펴보았다.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인 6월 공연시장을 2019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띄어앉기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터파크 판매 기준 매출액이 14%나 성장했다. 또한 2021년 7월 공연시장을 KOPIS 데이터로 살펴보면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과 비교해 공연건수가 거의 줄지 않았고, 매출액이 30%가량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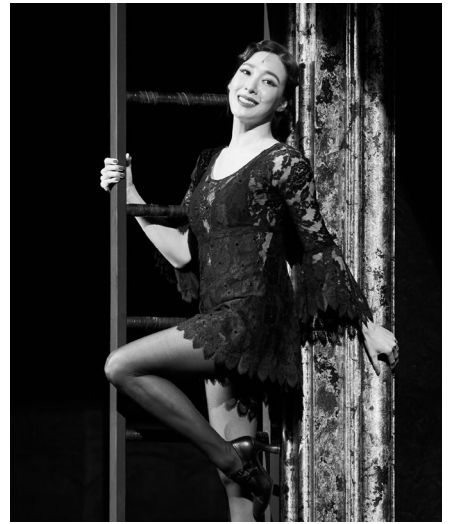
1) [보복소비, 밈\(MEME\), 아이돌 삼박자에... 공연계, 다시 활황\(헤럴드경제 2021.6.24\)](#)

[‘보복관람’ 폭발에 대형 뮤지컬만 웃었다... 공연계 양극화 심화\(아시아경제 2021.7.2\)](#)



[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준, 2019~2021년 7월 동월 공연건수 및 매출액 비교
(공연법 제4조 시행('19.6.25) 전 데이터 부재로 2019년 7월 이전 통계는 비교 불가함)

<시카고>나 <위키드> 등 유명 대형 뮤지컬이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대형 뮤지컬의 20대 관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여행과 같은 야외 여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문화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20대가 공연 소비자로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카고> 공연사진 ©신시컴퍼니

	시카고			위키드			팬텀		
	18년	21년	증감	16년	21년	증감	18년	21년	증감
10대	3.6%	5.1%	1.5%	5.5%	4.0%	-1.5%	3.3%	6.4%	3.1%
20대	29.5%	56.3%	26.8%	34.1%	47.8%	13.7%	28.6%	42.9%	14.3%
30대	33.3%	23.8%	-9.5%	33.1%	31.2%	-1.9%	32.5%	27.0%	-5.5%
40대	23.6%	9.4%	-14.2%	23.2%	12.7%	-10.5%	24.7%	16.8%	-7.9%
50대	8.9%	4.6%	-4.3%	3.9%	3.6%	-0.3%	9.3%	6.1%	-3.2%
60대이상	1.1%	0.8%	-0.3%	0.2%	0.6%	0.4%	1.6%	0.8%	-0.8%

대형 뮤지컬 2021년과 이전 시즌 공연 관객 연령대 비교(인터파크 자료)

	레드북			마마, 돈 크라이			배니싱		
	18년 (600석)	21년 (700석)	증감	18년 (300석)	21년 (600석)	증감	18년 (300석)	21년 (300석)	증감
10대	4.8%	8.6%	3.8%	4.6%	4.8%	0.2%	11.0%	5.7%	-5.3%
20대	48.8%	53.8%	5.0%	39.4%	36.5%	-2.9%	50.5%	46.2%	-4.3%
30대	32.6%	25.3%	-7.3%	36.4%	33.7%	-2.7%	30.0%	34.8%	4.8%
40대	10.6%	9.5%	-1.1%	14.7%	18.2%	3.5%	6.1%	8.7%	2.6%
50대	2.5%	2.3%	-0.2%	3.7%	5.8%	2.1%	1.4%	2.7%	1.3%
60대이상	0.7%	0.5%	-0.2%	1.2%	1.0%	-0.2%	1.0%	1.9%	0.9%

중소형 뮤지컬 2021년과 이전 시즌 공연 관객 연령대 비교(인터파크 제공, 객석 규모 100명 단위로 표기함)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 현저하게 20대의 비중이 늘어났다.²⁾ 인터파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카고>의 20대 관객 비중이 29.5%에서 2021년 56.3%로 늘어났다. 반면 30대 비중은 33.3%에서 23.8%로 줄어들었다. <위키드>도 지난 2016년도 공연과 비교하면 20대 비중이 13.7%p 증가한 47.8%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상연된 <위키드>, <팬텀>과 비교했을 때 <시카고>의 20대 관객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연습 현장 스케치 등 홍보 영상 속 최재림 배우의 복화술 장면 시연이 2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SNS에서 화제를 모은 것이 20대 관객 견인의 원동력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형 뮤지컬에서는 이러한 관객 연령대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마마, 돈 크라이>, <배니싱>의 관객 연령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공연에 비해 20대 관객이 다소 감소하고 30대, 40대 관객이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단, 같은 객석수 1,000석 미만 중소형 뮤지컬이라고 해도 <레드북>의 경우는 대극장 공연과 마찬가지로 20대 비중이 늘었다. 객석 규모가 비교적 크므로 대형 뮤지컬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